

■ 그림 여행



**HMS 캘커타 (포츠머스) 호의 선상 회랑**  
(The Gallery of HMS Calcutta  
(Portsmouth) c. 1876)

제임스 티소 (James Tissot 1836-1902)

(캔버스에 유채 686 mm x 918 mm 런던 테이트 미술관)

19세기 말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의 작품이다. 티소의 고객은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었다. 상류사회의 생활상을 소재로 삼았던 티소의 그림이 그들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상류사회 여인들의 옷차림을 묘사한 티소의 그림들은 그 시대의 패션 화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영국 군함 HMS 캘커타 호의 선상을 그린 이 그림

은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림의 크기가 엄청나다. 벽에 걸린 그림을 올려다 보면 거의 배에 올라타 이 장면을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배의 선상 회랑에서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바다를 보며 바람을 쐬고 있는 장면으로, 티소가 즐겨 그린 소재 '남녀 세 명의 미묘한 긴장감'을 잘 표현한 그림이다.

비스듬히 턱을 괴고 있는 젊은 남자는 복장으로 미루어 해군 장교로 보이며 눈길은 바다로 향했지만 관심은 온통 화면 맨 앞에 그려진 젊은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다. 바로 옆의 여인은 젊은 여인의 샤프롱, 즉 보호자로 보이는데 해군 장교와 젊은 여인의 중간에 가로 막고 서서 그들의 접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그림의 구심점인 젊은 여인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해군 장교의 관심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녀의 젊음과 미모는 모래시계 형으로 그려진 뒷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보고 통렬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남녀 사이에 오가는 추파와 여인의 나체를 암시하는 뒷모습 포즈가 '저속하고 진부하다'는 것이었다. 허나, 21세기에 보는 이 시원한 그림은 그저 낭만적이고 아름답기만 하다.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이 그림은 6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파리 도세이 미술관에서 열리는 티소 회고전에 대어 전시되고 있다. 해외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지금, 가슴이 뛰는 소식이다. 세느 강변, 기차역을 개조해 만든 아름다운 도세이 미술관에서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마음껏 감상하는 상상을 하며 2020년 7월을 맞고 있다.

《김동백》

강남 대동한의원 미주 분원  
**LESSPAIN ACUPUNCTURE**

**통증 관리**

침 치료  
부항 치료



각종 PPO / HMO 보험  
센트럴헬스 메디케어  
모나크헬스케어 받습니다

www.LessPainAcupuncture.com

진료시간: 월 ~ 금 10am ~ 7pm / 토 10am ~ 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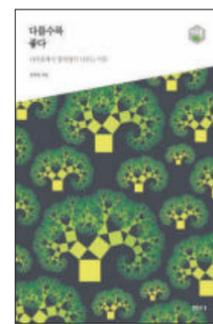
**714.582.2115**

1231 W. Central Ave. #B, Brea, CA 92821

■ 신간



**다들수록 좋다**



심리학을 토대로 인간의 창조성을 연구해온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했고 어떻게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직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나만의 개성을

살려 창조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김명철 지음 | 샘터사 펴냄 | 178쪽



**NEWSONG STUDIO**

**실용음악전문학원**

714.614.1383

**기타 / 드럼 / 보컬 / 피아노 / 베이스 / 건반 / 색소폰**

**레코딩 /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영상편집 / 미디어 / 믹싱**



NewsongStudioOC@gmail.com

7050 Village Dr. #i-2 Buena Park, California 90621